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4, 2021 Vol. 752

E-mail : chdailya@gmail.com

## “저 높을 곳을 향하여” 작곡자 故 전재학 목사 장례예배

코로나 19로 투병하다 지난달 18 일 별세한 고 전재학 목사의 장례예배가 지난달 30일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개혁장로교회한미연합총회장으로 진행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진건호 목사)가 후원한 장례예배는 엘리야 김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의 집례로 주재임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전복일 선교사의 조가에 이어 김 인철 목사(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증경회장)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계14: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인철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그 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곡함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설교했다.

그는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영생복락을



풍성한교회에서 엘리야 김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고 전재학 목사의 장례예배

누리게 된다”며 “전재학 목사님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먼저 천국에 가셨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박문석 목사(개혁장로회총회 남부노회장)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으며, 진건호 목사와 박정희 목사(개혁장로회총회 총회장), 한명수 목사 조사를, 김송현 집사가 전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송인

목사가 조지를 낭독했다.

조시에 이어 고인의 제자인 펩페라 가수 이경오 씨가 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사 작곡한 사부곡을 불렀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한편 고 전재학 목사는 1942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나 196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1970년 서라벌레코드사 전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고인은 실비 오는 소리에’(79년)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81년)를 작곡하는 등 음악가로 활성하게 활동하며 다수의 음악상과 작곡상을 수상했다.

1995년 한국 합동보수총회 동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괌으로 이주해 괌 찬양선교교회 및 학교를 설립했다. 2002년에는 LA에서 예능선교교회를 설립해 담임했으며, 나성열린문교회, LA 사랑의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국적인 복음성이 작곡을 위해 힘써왔다.

고 전재학 목사의 유골은 한국으로 옮겨져 연예인 장으로 다시 한번 장례예배를 진행한 후 국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미국인 28% “코로나19로 인해 신앙 더 강화돼”



©Unsplash/K. Mitch Hodge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10명 중 1명만이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의 신앙이 강화됐다고 보고했다고 28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퓨리서치(Pew Re-

search)는 미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등 14개 선진국에 거주하는 성인 1만4천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인 응답자 중 28%는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의 신앙을 강화됐다고 대답했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응답자 가운데 10%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미국인들은 코로나19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을 일반적으로 더 강화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28%). 대조적으로 영국인 가운데 14%만이 이같이 느꼈다.

미국인 응답자 중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강화됐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49%).

스웨덴(3%)과 덴마크(2%)는 개인 신앙이 더 강화됐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으며 일본과 독일은 각각 5%로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국가 대다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종교적 신앙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고 대답한 14개국 응답자의 중앙값은 10%에 불과했으며 85%의 중앙값은 종교적 신앙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됐다

고 대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각각 41%).

퓨리서치는 국가 별 반응에 폭넓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각국 시민들이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빠른 세속화’를 경험했지만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소속감이 낮다고 퓨리서치는 밝혔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모든 국가가 봉쇄된 기간동안 진행됐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침,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의회서 종교표현 자제 요청 받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 버지니아의회 개회기도 경험 전해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웅렬 목사가 최근 시작된 버지니아의회로부터 개회기도 초청을 받았고 소신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 사실을 31일 목회서신을 통해 알렸다.

류 목사는 서신에서 “요즘은 (정치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되어 버렸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담당한 목사는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마쳤고, 그의 기도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고 미국 내의 변화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류 목사는 “지난 주에는 미국 버지니아 의회 개회를 두고 오픈 기도를 했다”면서 “미국 하원개원 때와, 의회 기도 때에도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보내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지침을 받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개회기도에서 류 목사는 의원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고 주민들의 습관과 기쁨을 함께 하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고, 중요한 논제에 있어 분열이 아닌 화합의 결실을 맺을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다. 다음은 류 목사가 밝힌 2021년 버지니아의회 개회기도문이다.

Creator God, we thank you for giving our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May their hearts be filled with gladness, may their plans bear good fruit, and may their endeavors grant peace, safety, and happiness to those they represent.

창조주 하나님,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섬길 때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계획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 맺게 하소서. 이들이 대표하는 지역마다 평화, 안정,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We ask that you would give them discernment to make accurate



류웅렬 목사

rate decisions, wisdom for weighty matters, and courage for choosing right over wrong. May these members of Congress love their work and their people and radiate warmth and comfort when their communities shed tears of suffering. May they be intimate friends who share in the joy of their communities and be respected for the

존경 받는 의원들 되게 하소서.

Whenever they sit to discuss weighty matters, help them Lord to decide based on the needs of the people, rather than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Help them govern wisely, knowing how to turn seeds of conflict into a harvest of unity. May their families proudly remember their legacies. May history record their names with joy. We thank you God, and honor these men and women for their servic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개인의 관심이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다른 의견을 만날 때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화합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지난 기록들은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떠올리며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즐거이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의 섬김에 존경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대원 기자

## ‘머슴’처럼 섬기는 리더십에서 목회의 길 찾는다

제4회 “Zoom 온라인”  
캘리포니아



일시 2/23 첫 시작 (매주 화 5주간)  
10am - 12:30pm (미 서부시간)

방식 Zoom 온라인 (12명 선착순)

강사 송영선 목사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

등록비 \$50

문의 이홍록 목사  
(714-932-3352)

[mansain.org](http://mansain.org)



2월 23일(화)부터  
3월 24일(화)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제4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2월 23일(화)부터 3월 24일(화)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미 서부시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머슴교회의 10가지 가치와 제자훈련 등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 교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게 된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만사 인스티튜트’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민하는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을 초청한다”며 “머슴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자료들을 나누며 오직 예수와 한 영혼의 소중함, 목양의 과정과 평신도 사역을 가감없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등록비는 50달러며 문의는 이홍록 목사 [mcc3694@yahoo.com](mailto:mcc3694@yahoo.com), 714-932-3352로 할 수 있다.

## 故 정연성 목사 천국 환송예배 일정 발표



故 정연성 목사

오는 2월 4일(목)  
오후 12시 30분,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

시 30분,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Green Hills Memorial Park 27501 S. Western Ave. Rancho Palos Verdes, CA 90275)에서 진행된다.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성기은 목사의 사회로 설교는 정요한 목사, 축도는 장광춘 목사가 할 예정이다.

정연성 목사는 남가주한인 목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유족으로는 조이 정 사모가 있다.

##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로운 결론을 갖출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을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할 째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밸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할 째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있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이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기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2

##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믿으며 하는 이슬람권 선교운동(1)”

필자는 2007년 2월에 터키 안탈리아에서 있었던 288명의 현지 선교사들 그리고 미주와 한국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모였던 “터키 연합중보 기도회”를 참여한 뒤부터 매년 터키 선교를 다녀왔다.

이슬람권에서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터키가 이슬람권을 선교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적합하다는 선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였다. 그것은 맞았다. 1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터키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일으시키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필요로 하셨다는 생각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연합을 기다리셨다고 믿는다. 그 당시까지 꽁꽁 얼어있던 터키와 이슬람권의 선교가 연합 기도를 하면 서부터 영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매년 터키의 도시들을 밟으면서 현지의 한인 선교사들과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은 규모로 연합 중보기도를 이어 갔다.

2010년 5월 터키 이즈밀 지역의 옛 애베소 광장 한복판에서 세계 각 곳에서 모인 약 2000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터키 현지인 개신교도 300여 명과 같이 연합 기도회를 가졌다. 그 광장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로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우리 모두는 느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 땅과 이슬람권에 임할 것임을 믿었다.

2011년도가 되면서 이슬람권에 역사가 일어났다. 리비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갈등이 내전이 되면서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며 반군 편에 서며 리비아 내전이 일어났다. “아랍의 봄”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 사태는 이웃나라들에 옮겨 불었다. 끝나지 그리고 이집트에까지 연결되면서 중동의 내전 사태가 세계 나라들의 양극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유엔조차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면서 내전의 불은 시리아로 옮겨졌다. 그 해에



이 상 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만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약 800만 명 이상의 각국 이슬람 난민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매년 터키를 갈 때마다 거의 남동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잡는다. 몇 가지 이유는 필자의 입양 종족이 쿠르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사는 디야르바크르와 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방문한다. 그 지역은 시리아와 국경을 이루는 지역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그 지역엔 난민들이 수백만 명으로 확산되어 있다. 디야르바크르는 물론 그 주변의 도시들인 마르딘, 가지엔텝, 바트만, 아렌 등의 도시에는 이미 넘쳐나는 난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원주민인 쿠르드 민족은 그 난민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난민들로 인해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이 발생되었지만 쿠르드 민족은 불편할지언정 고난 받는 이웃 민족들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애쓴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기독교 문화의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해 모두 난민들 수용을 거부했다. 유럽의 대부분 기독교 나라도 독일을 제외하고 다 난민 수용을 거절했다. 그러나 터키는 모든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만난 현지 주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 고난당한 이웃 민족의 아픔을 정말로 같이 아파한다. 70년 전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의 나라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터키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하였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나 전사하였다.

어도 다시 한국이 어려우면 우리는 또 도울 것이라 말한다. 그들에겐 이웃이 형제의 개념이다. 무슬림들인데 기독교 나라들보다 더 성경적이다. 그것이 필자가 그들에게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그 난민의 사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점이었음을 그때는 세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계속)

###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7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중요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 에바브라, 에바브라디도 등등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고비마다 등장하는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의 두 번째 바울의 후견인을 자처합니다. 먼저 9장 27절에서 회심한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경험과 변화되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11장 25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던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바나바가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24회(4장, 9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등장합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 서신서에 5회(갈 2:1, 9, 13, 고전 9:6,골 4:10)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 선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첫 등장하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겨서 유무상통하는 초대 교회에 아름다운 미담을 남깁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뜻이 권위자(위로자:man of encouragement)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울을 격려하고 섭기는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연구한 콜먼(Kollman)은 바나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바나바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밖의 자료에서 풍성합니다. 콜먼(Kollman)과 밴던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③ “바나바와 만남”

서신(Epistle of Barnabas), 바나바복음서 등등입니다. 바나바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한 문서들입니다. 몇 문서는 상당한 권위를 갖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서들입니다.

우선 바나바 행전(Acts of Barnabas)은 마가가 썼다고 전해집니다. 바나바와 동역자 바울의 삶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소와 구별로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5세기와 6세기에 회람문서로 많은 성도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인 목사님이 쓴 동명이서(同名異書)가 있는데 전혀 다른 책입니다.

다음 바나바 서신(Epistle of Barnabas)은 A.D. 70년~13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소위 앤티레고메나(Antilegomena: 신약 성경이 될 것이니? 아니니? 논란이 되었던 문서)입니다. 바나바 서신은 거의 성경으로 인정받을 뻔했던 문서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복음서(Gospel of Barnabas)입니다. 이슬람 문서로 보이는 책입니다. 조잡한 언어와 활당한 주장이 담긴 바나바 복음서는 바나바 이름을 도용한 발작한 문서입니다. 바나바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슬람 선지자 함무드라는 활당한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묘사하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행 11: 24)한 지도자였고 격려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격려자의 품성이 바울과 함께 할 때에 더욱 빛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십을 살피면 역동성이 대단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을 찾아가 돋는 바나바를 보며 그가 얼마나 섬김의 사람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친화력, 섬김의 마음을 가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과 조력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바나바 깊닭에 바울의 사역과 삶은 교회사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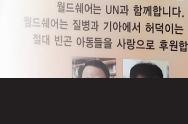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폭정에의 저항, 하나님께 받은 권세 남용에 대한 심판

##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의 정치적 책임 (3)-(4)

### 2. 칼빈주의 저항권 이론

칼빈주의 저항권 이론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담겨져 있는 통곡이자, 정치적인 메시지였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성경적 이해가 제시된 곳은 바로 『제네바 성경』의 각주와 해설에서였다.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제네바 성경에서 지적된 해설들을 따라서, 합당한 왕의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저항 설교의 한 부분은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대에 내려져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성경말씀이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로마 교황의 권위가 빛을 잃자, “왕권 신수설” (Divine Right of Kings)을 통해서 절대주의 시대에 왕권의 무제한적인 통치권을 주장한 이론이다. 그 바탕에는 교회에 관해서도 “수위권” (Royal Supremacy)을 주장하는 왕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으니 짐작해도 좋다. 엘리자베스, 제임스 1세, 찰스 1세 등은 한결 같이 왕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메리 여왕 시대에 유럽 대륙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왕권신수설을 비판한 존 포넷 (1514–1556), 크리스토퍼 군맨 (1520–1603), 그리고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 (1514–1572)에 의해서 저항권이 널리 전파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후, 잉글랜드 교회의 신학과 예식은 성공회라는 국가교회 체제로 정착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유럽의 개신교회를 채택하지도 않았던 엘리자베스의 종교정책 (Elizabethan Religious Settlement)은 “1559년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통일령 (Act of Uniformity, 1559)을 강화하게 되자,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교회를 세울 수 없었고, 단지 칼빈주의 신학과 정신으로 활동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로 이어지는 스튜어트 왕조에서 왕권신수설은 한층 강화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던 토마스 카트라일은 한편으로는 군주제도를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로교회의 독

립성을 확보하고자 분투노력했지만, 결코 순탄치 못한 삶으로 고난을 감당해내야만 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주교성경』 (1568)을 사용하도록 강조했고, 제임스 1세는 “흘정역”을 새롭게 내놓았는데, 세부적인 정치적인 견해는 『제네바 성경』의 해설과는 달랐다.

조지 부캐년 (1506–1582)은 생애의 대부분을 학업과 교수, 투옥과 도망자 생활 등으로 점철하였다. 낙스의 종교개혁이 정착되자 1560년 경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왕궁에서 어린 제임스 6세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후에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제임스 1세로 즉위하여 양쪽 다 다스렸다. 부캐년은 1566년에 공개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학장이 되었으며, 평신도로서 총회의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부캐년은 어린 제임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했고,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군주가 되어서 왕권의 제한성을 인정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했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담긴 저서가, 『스코틀랜드 안에서 군왕의 권리』이다.

부캐년은 시민들의 저항권 이론을 제시하여 스코틀랜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캐년의 정치적 주장을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기나긴 박해 속에서도 왕에게 저항하다가, 찰스 1세의 동생 제임스 7세가 가톨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제지하고자 1689년에 파면시키고, 명예혁명을 성취하였다. 부캐년의 핵심적인 정치사상은 모든 정치적 권세의 원천은 시민들이라는 점이다. 왕권은 제한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권세를 받는 것이기에, 왕이 시민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처벌하고 학정을 가한다면 저항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다. 부캐년의 책은 1584년에 의회의 결의로 정죄를 받았고, 1664년에 찰스 2세에 의해 정죄 당했으며, 1683년에는 제임스 7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책을 불태웠다.

프랑스 왕들의 횡포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탄압도 잉글랜드의 사례들과 같았다. 프랑스 종교전쟁이 진행되면서, 강물같이 많은 피를 흘린 위그노들의 저항이 한층 강화되었다. 1572년 8월 23일, 바돌로뮤의 날 밤에 약 5만여 명의 개신교

회 성도들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자, 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저항권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테오도르 베자 (1519–1605)는 칼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항권을 옹호하는 글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 subiects, 1574)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스페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글을 알루시우스 (1557–1638)가 발표하였다. 그는 칼빈주의 정치사상가로서 독일의 법조인이었다. 1609년에 스페인에게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지도자들하고 투쟁을 지속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에 속한 자들이었다. 칼빈주의자들은 개혁교회의 정착을 위해서 국가를 장악하고 있던 각 지방 귀족들과도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항구도시 엠덴은 네덜란드 상인들만이 아니라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잉글랜드와 신성로마제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요충지였는데, 독일 루터파 군주들도 개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력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1571년과 1610년에 두 차례 개신교회의 총회가 엠덴에서 개최되었으며, 화란 개혁교회의 심장부이자, “북부의 제네바”로서 지켜나갔다.

### 3. 새뮤얼 러터포드, “법과 군주”

칼빈주의 정치사상은 스코틀랜드 청교도를 대표하는 장로교회 목회자이자, 언약신학자요, 교수였던 새뮤얼 러터포드 (1600–1661)의 저술 속에서 한층 더 견고한 입장으로 전개되었다.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교회와 정치에 관련된 기초 작업이 필요했었고, 칼빈, 베자, 부캐년의 중요한 사상들과 주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왕권은 제한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권세를 받는 것이기에, 왕이 시민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처벌하고 학정을 가한다면 저항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다. 부캐년의 책은 1584년에 의회의 결의로 정죄를 받았고, 1664년에 찰스 2세에 의해 정죄 당했으며, 1683년에는 제임스 7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책을 불태웠다.

프랑스 왕들의 횡포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탄압도 잉글랜드의 사례들과 같았다. 프랑스 종교전쟁이 진행되면서, 강물같이 많은 피를 흘린 위그노들의 저항이 한층 강화되었다. 1572년 8월 23일, 바돌로뮤의 날 밤에 약 5만여 명의 개신교

Sacred and Royal Prerogative of Christian Kings)을 반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러터포드의 정치사상과 종교자유에 대한 공헌과 기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오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심대한 저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 국왕 찰스 2세가 이 책에 대해 진노하면서, 군주의 학정에 저항하는 반란군들에게 근거를 제공했다고 하여 응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서, 1660년 11월 에든버러에서 『법과 군주』를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동시에 러터포드는 교수직에서도 면직되었다. 1661년 3월에 사망하기까지 무려 한 세대를 신학교수로 활약한 러터포드는 4천 쪽이나 되는 엄청난 저술을 남겼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보를 드러내는 개혁주의 사상들이 담겨져 있다. 세속 역사가들도 이 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한 평생 개혁주의 신학자로 살아가면서, 정치 분야에 기여한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1688년의 명예혁명은 오롯이 러터포드의 영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러터포드는 당대 가장 문제가 되는 자들은 두 가지 신학사상과 연결된 자들이라고 지적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반율법주의자들이다. 그는 이들을 최대의 대적들로 배척하였다.

런던에서 모인 장기의회 (1644–45)에서 행한 러터포드의 설교들이 야말로, “칼빈주의 교리가 정치적인 태도를 결정하는데 기여한 가장 탁월한 수단들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한 그의 설교는 당대 정치적 혼란 중에서 가장 담대한 개혁주의 정치사상이 담겨있는데, 그보다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칼빈의 주석을 참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러터포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신적 작정과 선택, 사람의 부패성과 책임 등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교리들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로 강조되어 온 내용들이다. 러터포드는 의회 앞에나가서 “그리스도는 영국 왕의 진노보다 더 훨씬 오랜 기간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찰스 국왕을 의지하지 말고, 왕 되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외쳤다.

세 가지 정부 형태들,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중에서, 러터포드가 분석한 차이점이란, 누구에게 권한

을 더 많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는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인 왕이나 귀족보다 더 크고, 의회의 권리가 왕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왕의 폭정에 저항하는 권리라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남용한 자의 죄에 대한 심판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정립을 모색했던 칼빈, 베자, 낙스, 부캐년의 토대를 근거로 하여, 러터포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국왕의 폭정에 맞서는 사건으로 영국에서 꽃을 피웠다. 1640년부터 1643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설교 안에는 자유를 향한 지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있다. 청교도들은 폭정을 행하는 군주를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소명이라고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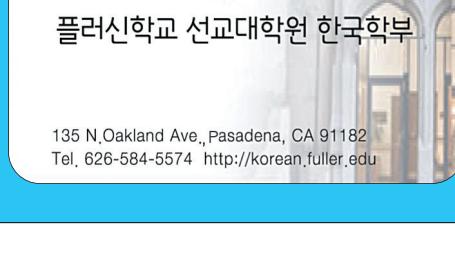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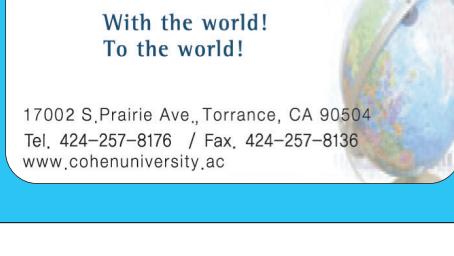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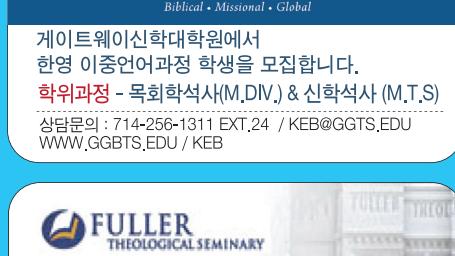
법률에 의하여 법정에서 죄를 규정하는 제도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청교도 언약도들과 런던에 모인 의회의 대표들이 찰스 1세의 폭정에 맞서서 싸우다가 25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칼빈주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청교도들과 시민들은 올리버 크롬웰의 지휘 하에 윙달파 군대와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시민전쟁”(1642–49)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 사건은 사실상 러터포드의 강렬한 저술에서 강조되었던 대로, 국가의 통치영역에서 교회의 윤리와 도덕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였던 기간에 벌어졌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미국인 4명 중 3명, “낙태에 대한 제한 찬성”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명 중 3명은 낙태의 합법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7일 국제 가톨릭 봉사단체인 콜롬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이 후원한 마리스트 폴(Marist Poll)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53%는 자신이 “친낙태(pro-choice)” 지지자이며, 43%는 “친생명(pro-life)”에 가깝고, 4%는 “확실치 않다(unsure)”고 답했다.

그중, 전체 응답자의 76%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신 중 언제든지 여성의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고, 낙태 옹호론자들도 27%만이 동의했다.

합법적인 낙태 시기로는 ‘임신 첫 3개월까지’를 꼽은 응답자는 25%였고, 친낙태론자는 35%, 친생명론자는 14%가 이에 동의했다.

낙태가 ‘임신 첫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10%였으며, 친낙태론자는 44%가 여기에 찬성했다.

낙태 제한 시기와 관련해, 친낙태



2020년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응답자 중 55%는 ‘임신 첫 3개월’을 선호한 반면, 친생명 응답자의 98%는 ‘출산 전 3개월’에 낙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8%(친생명 40%, 친낙태 16%)는 낙태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1%(친생명 21%, 친낙태 2%)는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친생명 23%,

친낙태 2%)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보였다.

바비라 카발호(Barbara Carvalho) 마리스트 폴 소장은 성명에서 “친생명과 친낙태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는 정책에 대한 넓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 공론화에 따라 유통되는 경향이 있지만, 낙태에 있어서는 미국인들 사이에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8%)는 “여성의 낙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명 중 3명(77%) 이상은 ‘다른 국가에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 의회는 민주당의 주도하에 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중단한 행정 명령을 철풀해 가지고 있다.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 낙태 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멕시코시

티 정책’을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민주당 59%, 친낙태 56%)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1973년 낙태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48%는 ‘각 주에서 결정한 낙태에 대한 특정 제한을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31%는 법원이 ‘언제든지 낙태가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7%는 ‘법원이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럼버스 기사단의 최고 기사를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인 칼 앤더슨(Carl A. Anderson)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양당의 대다수는 낙태 규제를 지지하고 해외에서 낙태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여론조사는 남세자가 부담하는 ‘임산부 요구에 의한 낙태(abortion on demand paid)’를 장려하는 정책이 분열적이며, 미국 여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토니 블링컨 美 신임 국무장관 “대사관에 LGBT 깃발 게양할 것”

### 인권특사 부활 계획도 밝혀

새롭게 임명된 미국 국무장관이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을 게양하고 ‘LGBT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8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임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LGBT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에드 마키 의원이 “LGBTI 특사를 되도록 빨리 임명할 것인지, 그리고 대사급으로 승진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묻자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전 세계 LGBTQI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트랜스젠더,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살해가 지금 까지 보아온 것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저는 미국 LGBTQI 사람들에게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무부가 즉시 떠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6일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 국무부

LGBTI 권리 전 세계에 지원하고 알리기 위한 미국의 이전 노력을 상당 부분 후퇴시켰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69개국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9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발족하면서, 미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 선언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권 주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에 앉아 파렴치한 위선을 행했다”며 “세계 인권선언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도 때로 인권을 밀미로 중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 슬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

보를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포괄적인 인권 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옹호단체들은 인권위 설립 움직임이 인권위의 합의적 정의에서 LGBT 권리와 낙태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사관에 걸려있던 LGBT 깃발을 내린 바 있다.マイ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대사관에는 한 개의 깃발만 걸어야 하고, 그것이 미국 국기”라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난 그것을 지지한다”고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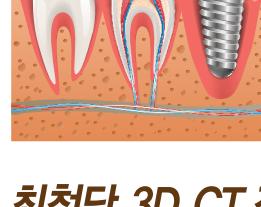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진 LGBTI 인사들의 인권 특사도 공석이 됐다. LGBTI 인사들의 첫 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네팔 미국 대사를 임명하기 전인 2015년부터 2017까지 재임 한 랜디 베리였다.

한편, 블링컨은 바이든 내각 가운데 에이브릴 헤인즈 정보국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재닛 엘런 재무장관에 이어 4번째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인물이다.

강혜진 기자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기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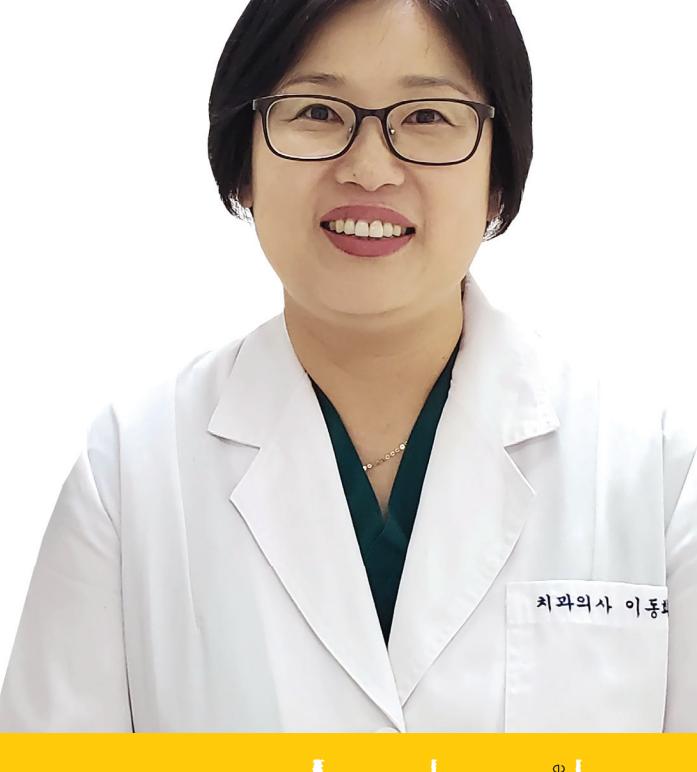
###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 백인 복음주의자들, 트럼프 지지도여전히 높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White House/Tia Dufour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의 핵심 지지 그룹이었다고 25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단체 ‘공공종교연구학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가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1천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절반 이상(62%)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어떤 종교 단체보다 훨씬 높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사이 백인 주류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34%에서 41%로 증가했지만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도는 같은 기간 51%에서 39%로 떨어졌다. 유색 인종과 무종교인들의 트

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19%로 가장 낮았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 일부가 국회 의사당을 습격해 두 번째 탄핵에 이르게 된 후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났고, 모든 미국인 중 31%만이 그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대다수의 미국인(55%)이 그에 대한 호감도를 보였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종교적 성향으로 분류하면 백인이 아닌 개신교인(68%)과 무종교 미국인(63%)이 신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복음주의자 5명 중 1명만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조사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존 맥아더 “표면적인 기독교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



존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아더 담임 목사가 지난 24일 주일 설교에서 일부 미국의 초대형 교회가 지지해 온 “표면적인 기독교(superficial Christianity)”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설교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사역의 기술적 변화와 결합되어 “감별과 전환(sifting and shifting)”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불신자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문화적인 기독교를 창조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부도덕과 동성애, 그리고 인종적 증오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서 “복음에 물을 섞고, 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는 일종의 피상적이고 얕팍한 기독교(superficial, shallow Christianity)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표면적인 기독교가 많은 돈을 벌고, 지위가 오른 수많은 돌팔이들(charlatans)”로 인해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힘들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그 일부”라고 지목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실성(faithfulness)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었다. 그것은 투쟁이었다”고 회상하며 “이제는 감별과 전환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가짜들(phonies)은 인터넷에 숨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는 속속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맥아더는 대유행 기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려 한 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ABC, CNN, LA타임즈 등의 여러 언론사를 언급하며 “그들은 그레이스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시도했다. 미국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만큼 면밀한 조사를 받은 교회는 없을 것”이라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정부의 예배 제한에 따르지 않은 지난 10개월 동안 현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교회 역사상 어떤 10개월 동안보다 더 많이 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 주와 LA시의 실내 예배 금지령에도 교회의 예배권 한을 위해 싸웠으며, 매 주일마다 벌금을 내야 했지만, 성도는 오히려 번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 중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다. 이곳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아주 작은 지역 교회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천 명의 새로운 침례 받은 교인에 대해 “그레이스 난민들(Grace refugees)”이며 “다른 교회에 갈 곳이 없어서 교회 난민으로 여기에 온 사람들”이라 소개하자 청중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맥아더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날아왔고, 매주 일요일 서부 전역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몰려왔다”면서 “여러분 중 일부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문을 연 교회라서 왔겠지만, 단지 열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교회 및 선교

### LA 지역

<b>LA 백송교회</b>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블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b>김성식</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주일예배 예배 피부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평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b>呻니김</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피부도 예배 오후 11:00 평일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평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자들을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령성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Elder 코너) T. (213) 386-2233	<b>김기섭</b>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45(내시대예배 첫점 9:3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3부예배 예배(내시대예배) 오후 11:3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중장기도(도원) 수요 오후 7:30	<b>장태원</b> 담임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세번기도회 오후 5:30 (월~토)
<b>New Church</b>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b>최순환</b>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b>한천영</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금)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새벽 오후 6:20
<b>갈보리민음교회</b>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202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b>강진웅</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2부예배 오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b>엘리야 김</b>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후 6:30
<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 Rampart 교차로 복동쪽에 위치	<b>진유철</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b>박현성</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인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후 11:00 한여정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b>차성구</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유초등부 오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후 11:00	<b>정장수</b>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1: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예배(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리셋에볼루션(Reset) 예배실 오후 11:00
<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애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b>신승훈</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후 6:00(월~금) 라티노 오후 6:30	<b>이명수</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학도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b>김경렬</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연 오후 3:00 세번예배 오후 5:30(월~금) 산타모니카 마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b>곽부환</b>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예배(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리셋에볼루션(Reset) 예배실 오후 11:00
<b>나성제일교회</b> 밀ーム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b>이순환</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세번기도회 오후 6:00(화~토)	<b>정운교</b> 선교에 흔들, 소·친·초 정신의 흔들, 바른교화관의 흔들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애의 공동체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애의 공동체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b>이순환</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7:30 세번기도회 오후 6:00(화~토)	<b>한우리장로교회</b> 밀ーム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애의 공동체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애의 공동체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b>한우리장로교회</b> 밀ーム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b>LA 동부, 라스 베가스</b>	<b>고태형</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화~금), 오전 6:00 주일학교 오후 10:30	<b>이희철</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b>ECO선한목자교회</b> 교회에 성직자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b>김성원</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화~금) 주일학교 오후 10:30	<b>신용환</b>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b>남가주새소망교회</b> 예배 성령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에그리스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b>우영화</b>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1:40 2부예배 오후 9:40 대학창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1:4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EM(Holy Wave) 오후 10:00 오전 6:00 (화~금)	<b>조응철</b>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토)
<b>동부사랑의교회</b>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b>우영화</b>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1:40 2부예배 오후 9:40 대학창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1:4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EM(Holy Wave) 오후 10:00 오전 6:00 (화~금)	<b>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b> 5504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t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후 9:15  
3부예배 오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EM 3부예배 오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침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세벽예배 오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6:30(토)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11:00  
중보기도회 오후 10:30

성경공부 수요예배 오후 7:30  
타스性强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I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후 9:00  
주일 3부 오후 11:00  
[Bible Study Service]  
사방구어 오후 8:45(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EM 오전 11:15(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 오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세벽기도회 오후 6: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찬양부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유부군 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 한인교회**  
문화로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마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9:30  
주일 3부 오후 11:30  
주일 4부 오후 7:45  
주일 5부 오후 2:00  
세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윤대학**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j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세벽기도회 오후 7:30(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남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체육  
주일 1부 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운동회 오후 7:45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T. (818) 363-5867

**최 혁** 담임목사

**주 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9:40  
주일 3부 예배 오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EWS 예배 오후 2:00  
유증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사역예배 오전 6: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회 오후 6:00(월~금)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1:00  
3부 예배(EM) 오후 11:00  
2부 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 오후 6:00(화~토)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9:30  
2부예배(EM) 오후 11:00

유고EBI Bible Study 오후 7:30  
세벽예배 오후 6:00(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피송가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 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기내습습 오후 10:20

세벽기도회 오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성기내습습 오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0:45  
EM성경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 매일 오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0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치부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예배 오후 10:45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벽기도회 오후 5:30  
금요성령방법회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봉사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창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월~토 오후 6:00  
EM예배 오후 6:00  
주일학교 오후 11:00  
세벽예배 오후 5:30(화~토)

**고창현** 담임목사

**토伦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중국 기독교 인구 2030년까지 3억명에 달할 것”

중국 기독교 공동체 인구가 오는 2030년까지 3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회 규모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난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픈도어 선교회 전략 연구 책임자인 론 보이드-맥밀란은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Express UK)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 인구 성장에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를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교회가 왜 그렇게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교회 규모와 교회 성장을 두려워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라며 “1980년 이후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성장을) 이 연간 약 7%에서 8% 사이라면, 2030년까지 약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국 지도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49년까지 경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교회성장)이 그들을 방해한다. 교회가 계속 그렇게 성장한다면 그들은 권력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계 감시 목록 50개국 가운데 중국을 17위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중국) 교회가 ‘강력한 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일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강하게 의존해 사회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제한하고 교회를 중국화(Sinicizing)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교회 뿐만 아니라 공식 승인된 개신교 교회 혹은 삼자애국운동 가입 교회라도 중국 전역에서 감시를 받으며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성경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신자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들은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겨야 했고, 이를 통해 정부 관리들은 정부 관리들은 감시 캠페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종교에 대한 단속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신장 위구르족에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 미국 오픈도어즈

거주하는 위구르 무슬림은 중국 공산당이 시행한 집단 구금, 강제 노동, 강제 불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 정부를 인권 침해 혐의로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CP는 전했다.

마이크 품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 무슬림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용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최소한 2017년 3월부터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학살은 현재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학생수시모집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격리의 유익!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현재, 우리교회에서 성경쓰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을 먼저 쓰고,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신구약 성경을 다 완필하신 분이 벌써 열 분 가량이 계십니다. 완필하신 분 가운데 최고령자가 올해 87세이십니다. 눈도 침침하고, 손도 굳어서 쓰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요. 완필 성경을 펼쳐보니, 한자, 한 자, 참 정성들여 쓰셨습니다. 완필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이 때가 아니면 언제 성경을 쓰겠어요.”라고 들 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적 성장의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신 것 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 1:12)

바울이 만일 계속 전도여행만 했더라면, 바울의 위대한 서신들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 가운데 애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여정을 멈추고 그를 옥에 격리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후세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어떤 이는 ‘복음의 진보’로 만들고, 어떤 이는 ‘코로나 레드’로 만들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팬데믹 시간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성경읽기’, ‘독서나눔’, ‘증보기도’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라도 성경쓰기 전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주 가량 지나고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평생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다고 느낄 만큼 많이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고열에, 호흡까지 곤란하고, 더불어 누구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 안에 비닐로 경계를 하고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비닐 구멍 사이로 들여다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말입니다. 마치 영화 ‘올드 보이’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몸이 회복이 되고 집 안에 비닐을 걷고 나니, ‘스테이 엣 홈’도 큰 자유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의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느끼고, 더 나아가 ‘코로나 레드(분노)’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을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투하고,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성장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하면 점점 이웃이 없어지고 결국 끝에 가면 홀로 남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중심성의 본성 때문에 자기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반복하며 징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인생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느 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큰 폭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 3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자기중심성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밟았으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갈2:20)고 자기중심성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중심성이 날마다 죽는(고전15:31) 믿음생활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죽어야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삶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이웃과도 화평하여져서 점점 삶이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순종하게 되니까 점점 더 삶이 깊어지고 잘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죽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영화 (glorification): 구원의 최종완성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영화에 대해서 증거한 바 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 그려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한다.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게 될 것 즉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하나는 영혼의 영화 (spiritual glorification)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영화 (physical glorification)이다.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일어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며, 우리의 영혼은 죄의 현존으로부터 해방되고 영화되어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즉 우리 영혼이 먼저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영화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을 옮입게 된다.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되며,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변화된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우리 영혼이 영화된 다음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낙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

복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서도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원에서 지내는 기간은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 이자, 임시 상태 (interim state)이지 최종상태는 아니다. 우리 육체의 영화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우리 육체의 영화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 우리의 죽은 육체는 부활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재결합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계획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인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활의 상태에서 즉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영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가?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된 상태가 마치 유령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오해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성 (materiality)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경험하는 부파와 늙어짐이 있는, 죄로 오염된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육체를 옷입게 된다. 이 하늘에 속한 육체, 영원한 육체는 결코 썩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다. 영원히 완전한 육체로 존재한다.

고전 15:42-44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옥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둘째,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육체

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죄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되면 우리는 또한 죄와 전혀 무관한 영광의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영화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화 (eternalization) 된다는 것이다.

영원화된 존재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셨다.

한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셨다. 방문을 열지 않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다.

넷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음식을 드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 즉 식사와 터치와 대화가 부활한 이후에 그대로 연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영화되어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식사와 서로에 대한 터치와 서로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영광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 비현실적인 유령과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더 현실적이고 더욱더 구체적인 실제적 삶이 될 것이라는 점

이다.

다섯째, 우리가 부활을 거쳐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곳에서 영원히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

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핫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김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예배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즉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 교통과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통치자로서의 삶 즉 매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내세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세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내세를 간절히 고대하고, 내세에 대하여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중 하나님 바로 “내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의 상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에서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www.chdaily.com](http://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http://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CHRISTIAN BUSINESS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www.chdaily.com](http://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 1,000원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fist91@gmail.com](mailto:go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mailto: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http://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의 초기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열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치과의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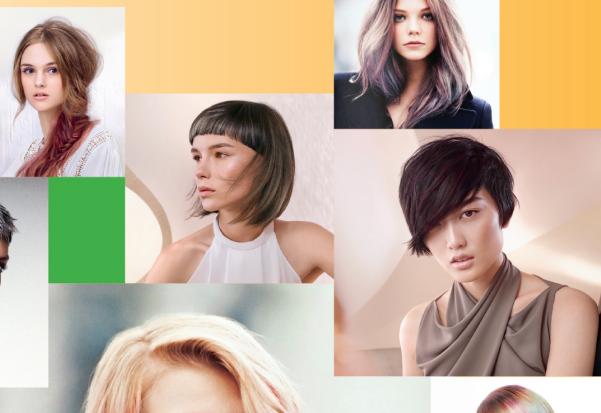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스티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up  
레귤러

\* 단, 컬라만 하시면 \$4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레귤러

\* 단, 컬라만 하시면 \$120 up



프로페셔널 웨ла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티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myStylist mystylist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삶

## 빛을 땅 끝까지

이사야 49: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600년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흑암한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시겠는데, 그가 오시어서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질 두 가지 비교적인 역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 위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계약의 대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곧 남자들의 할례를 통하여 계속 확인, 보증시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효과가 무 할례가 되는 의미 없는 결과로 전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방의 그리스도로까지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 1.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는 복음

본문 1절에서 단수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나를”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항상 은혜 계약의 성취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라는 사명의 입장에서 자신을 일인칭으로 나타내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구원사역을 위한 복음진리의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 한 교리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중논법으로 반복해서 “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종에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예언하시며 이름까지 지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의 내용을 깨닫고 믿어져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그 이름(예수)에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사람들은 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며,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를 개의치 않으며, 모든 이들에게 날카로운 칼 날로 쪼개어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광(磨光)한 살”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갈아서 빛을 낸 화살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통(箭筒: 화살을 담아두는 통)에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했는데, 종은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무엇이든 끓고 지나는 마광한 화살로 심령을 부수고 찔

러 회개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의 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날카로운 칼날과 마광한 화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일깨우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디고 완악한 자들로 인해, 성과를 보기 힘들어 보내심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탄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사 49:4)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수고와 희생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2.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중략)…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중에 더러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6-8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원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훔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계약을 맺으시며, 메시야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져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막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 받은 것으로 다른 것 인양 우쭐대고 잘못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계약에 의해 택하심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했는데, 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9-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말씀 중에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수자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으로 표현하여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로마서 1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희 밤성이 올무와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를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세상적 속물근성으로 인해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에 따르는 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열국의 아비)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첫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 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방 모든 민족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 3. 진리의 빛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성도

이사야 4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을 택하여 자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빛을 땅 끝까지 밝히게 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자가 그 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과로 이루어졌을 때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불러들여 쓰신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불품없는 인생들로 이유 없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택하시고, 구속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땅 끝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당부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힘써주기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합당한 사역자로 쓰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땅위의 모든 인종들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만들어주실 이 언약에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사역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 / 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기본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 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 양자 깔창

###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하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은 : 항균, 항취 효과
-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EM 유용 미생물 : 곤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Z-UP전통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사용시간만큼 부신감은 악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박목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5) 세상의 성인, 교회의 어린이

# 정인 양 학대치사 사건,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이 낳은 비극

기독교인 범죄 무마하려는 시도, '값싼 은혜'로 지탄 본회퍼, 자멸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참담함 금치 못해 정인 양 바라보는 한국교회 심성, 이와 다르지 않아야 성경과 본회퍼 가르친 참된 어린아이 찾아볼 수 있나

## ◆신앙과 어린이: 어린아이에 대한 본회퍼의 신학적 인간학

지난 한 주, 대한민국 전역은 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발생한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층부터 일반인들까지, 인간 이하의 악랄한 심성을 가진 가해자들에게 큰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 양에게 죄책감과 애도감을 표하고 있다.

본 사건을 통해 사회적 관점에서는 입양절차나 아동학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어린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성해야 하는가?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한국사회 전체의 공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해당 사건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일어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침 몇 주간에 걸쳐 본회퍼 신학에 대한 논평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 악독한 죄악을 본회퍼의 기독교적 타자윤리 관점에서 진지하게 되살피고 반성해보자 한다.

본회퍼는 그의 저서 <행위와 존재>(Akt und Sein, 1930)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소외와 고독 속에서 성인이 된 자가 고향에서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이 고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며, 항상 '미래'이고, 즉 '신앙 안'에서 현재가 되는 미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미래의 어린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새로운 인간은 세상의 협소함으로부터 하늘의 광활함으로 거듭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간은 그가 전에 그런 사람았던 아니든 간에 - 하나님의 피조물, 즉 어린이가 된다."

본회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인과 어린이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이 두 개념을 신앙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해석한다. '소외와 고독 속에서 성인이 된 자'란 구성적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자율적인 자기실현의 운동을 추구하는 정신 속에서 자신의 지혜에 도취된 자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고전 3:18)"와 상통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여기는 교만의 심성은 피조물인 인간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력화된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도래할 소망의 미래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인격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심성으로 성격이 규정된다.

여기서 어린이란 자기 존재의 고향이자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선하신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전한 겸손과 온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격을 말한다. 이는 이전의 논평에서 언급한 인간 인격의 '선의 가능태'가 온전하게 현실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본회퍼는 육체적인 나이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하는

어린이의 심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행위와 존재>의 결론으로 내세운다.

존재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무지를 절박하게 수긍하고, 자기 행위의 불완전함과 타락 가능성에 경계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삶과 계명으로부터 자기 삶의 방향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신앙과 윤리: 신앙의 진정성 판별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지혜

어린이에 대한 본회퍼의 신학적 고찰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마 10:14-15)"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심성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심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보호의 심성은 기독교적 인격과 문화의 성숙도를 가능하는 하나의 주된 기준이 된다.

참된 기독교 신앙인은 그 스스로가 자고하는 성인의 심성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의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하기에, 실제 육체적으로 나아가 어린 아이들의 삶과 심성 역시 보호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그 자신도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처지에 있기에 무지하고 연약한 아이들의 처지에 깊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회심의 증거이다.

다시 말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가 자녀들에 대해, 어린아이들에 대해 무자비하며, 그들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지배하려 하며, 아이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다면, 그런 이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말해 외식이고, 통상적인 말로 지독한 위선이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인격 존중이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는 기독교의 어린아이에 대한 자애와 근대적 인격 존중 사상이 결합된 결과로서,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디즈니의 대중문화 콘텐츠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 가치들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상통하는 측면을 보인다.

결국 정인 양의 학대치사 사건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이 낳은 비극이라 말할 수 있다.

정인 양을 입양한 가해자 부부는 모두 경북 지역 목회자 자녀이며, 기독교 신앙의 색채가 짙은대학 출신이다. 양부 안모 씨는 기독교 방송국 CBS의 행정직 직원이기도 하다. 물론 안모 씨는 최근 정인 양의 학대 사망 사건이 불거지면서 CBS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들이 생후 8개월 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자행한 학대 행위는 엄기적이라 할 만큼 잔혹하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기독교인의 외모를 걸친 인간들의 외식, 참된 어린아이의

심성을 갖지 못한 이들의 불신앙을 입증하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물론 한 개인의 신앙의 온전함에 대한 판단권은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과 신학의 분명한 가르침을 기준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 여부를 기준해볼 수 있다.

통상 구원 섭리의 무조건적 효력

에 기대어 기독교인들의 명백한 반기독교적·반신앙적 행각을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해 왔지만, 이는 신앙을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것으로 포장하려는 무지의 소치일뿐, 진정한 기독교적 지혜가 아니다.

본회퍼는 이처럼 구원 섭리의 무조건적 효력을 기대어 인간이 품고 있는 악의 가능태를 은폐하고 기독교인들의 범죄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값싼 은혜(cheap grace)'에 기댄 불신앙이라 지탄한 바 있다.

본회퍼는 독일 교회 내부에서 유대인 혐통이라면 어린아이들까지 혐오와 증오로 대했던 반기독교적 신앙인들을 목격했다. 그는 값싼 은

혜에 기대 자멸해가는 독일 기독교 인들의 행태 속에서 인간 타락의 가장 저열한 양상을 발견하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다.

정인 양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심성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가 그간 일부러 외면해온 값싼 은혜와 구원에의 맹신을 입증하는 극명한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 포장된 불신앙의 습성이 '소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전함을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외식에 불과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과연 성경과 본회퍼가 가르친 참된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 가슴아플 따름이다. <계속>

## ◆박목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험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캐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 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어린 시절의 디트리히 본회퍼와 그의 쌍둥이 자매 사빈 본회퍼. ©dietrich-bonhoeffer-verein.de



디즈니 콘텐츠들이 기독교적 요소를 거부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만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atlantaparent.com 캡처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본회퍼)". ©spotlight.africa 캡처

##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재능과 열정과 노력

## 주변과 어울려 휘어질 것인가, 힘들지만 소신대로 부러질 것인가?

원세 vs 방세  
정순훈

쌤앤팩스 | 304쪽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당신은  
누구를  
알고 있는가?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하게 사는  
원세(圓世)와,  
소신을 펼치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난 것을 감수하는  
방세(方世),당신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조화롭게 살 것인가,  
소신대로 살 것인가?방세적 삶과 원세적 삶 조화 이뤄야  
진리 문제는 방세, 나머지는 원세로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 담 허물어야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성  
공을 꿈꾸기에, 어느 시대나 지도층  
에 대해 관심이 많다. 왕정시대든  
민주주의 시대든 마찬가지다.서양에서는 인간이 성공하기 위  
한 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 3가지  
는 재능과 열정과 노력이다. 그들은  
이처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 그  
러나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천시  
(天時)와 지리(地利), 그리고 인화(人  
和)를 꼽는다.지리는 요즘 말로 하면 주변 여건  
이라고 할 수 있고 인화는 사람들과  
의 화합, 그리고 천시는 일을 이를  
때를 말한다. 맹자는 이 3가지 중에  
서도 인화가 제일이라고 했다.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 노력만으로는 성공이 보지 않  
는다. 오히려 이는 기본 조건이고,  
궁극적 요소는 일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즉 '때'다. 때  
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여건이 좋아도 일이 이루어지기 쉽  
지 않다.<역경>에서는 현명한 사람도 때  
를 만나지 못하면 그 능력이 활용  
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능력은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사  
람들을 '방외지사(方外之士)'라 한  
다. 누구나 방외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방외지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  
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책  
이 바로 <원세 vs 방세>다.이 책의 저자인 정순훈 씨는 건  
국대 행정학과와 고려대 정체대학  
원을 졸업했다. 젊은 시절부터 15년  
이상 국회에서 지냈다. 전 국회의원  
이었던 하순봉 씨 보좌관도 했고, 한  
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희창 전  
대표의 연설문 보좌역을 지냈다.저자는 이런 경험과 역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  
는 힘을 '원세'와 '방세'로 보았다. 특  
히 정치라는 무대에서 인간의 수많은  
흥망성쇠를 보면서, 원세와 방세  
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독  
자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원세(原世)는 무엇이고, 방세(方  
世)는 무엇인가? 원세는 주변과 조  
화를 이루면서 원만하게 사는 것  
이고, 방세는 소신을 펼치며 원칙  
을 지키기 위해 모난 것을 감수하  
는 것이다.원세와 방세라는 말은 <역경>에  
나오는 '원이신(圓而神)'과 '방이지  
(方以知)'에서 유래했다. 원만하고  
둥글게 사는 길인 '원이신'을 '원세'  
라고도 하고, 모나지만 원칙을 지키  
며 사는 '방이지'는 다른 말로 '방세'  
라고 했다.저자는 방세의 대표적인 인물로  
명나라 방효유를 들고 있다. 명나라  
연왕(후의 영락제)은 반란에 성공  
하자 당시 지식인의 표상이었던 방  
효유에게 황제 즉위조서를 쓸 것을  
명했지만, 그는 통곡하며 봇을 내던  
지고 조서를 쓰지 않아 귀밀까지 죽  
어지고 대꼬챙이로 혀가 뾙히는 죽  
음을 당했다.황제는 설득에 실패하자 방효유  
의 9족인 부계 4대, 모계 3대, 처계  
3대와 함께 친구, 제자를 10족으로  
간주해 방효유의 눈앞에서 먼저 죽  
였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10족이 멸  
하는 참극을 당한 것이다.방효유의 저서는 읽는 것도 소지  
도 금지되었다. 이를도 금지어가 됐  
다. 그의 신원은 오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방효유  
는 소신을 갖고 선비처럼 살다가 죽  
은 방세의 대표적인 사례다.저자는 현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  
운데 방세의 인물로 박정희, 전두  
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있다.이에 반해 저자는 원세의 대표적  
인 인물로 명제상 황희를 꼽는다.  
그는 소신을 지키면서도 주변과 원  
만하게 사는 것, 그 오퍼한 이치를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  
었다.젊은 시절 황희는 새로운 나라 조  
선에 출사하지 않는 고려왕조의 많  
은 선비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숨어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새 나라에  
참여해야 백성들이 더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권유로 결국 출사한다.그러나 강직한 성품으로 자기주  
장을 폐며 소신을 지키려다 주변과  
수없이 부딪쳤다. 그는 왕권은 장남  
이어야 문제는 생가지 않는다며 세  
종의 왕위계승을 반대하다가 귀양  
까지 갔다.그가 세종과 일하게 된 것은 나이  
예순이 넘어서였다. 젊은 시절 귀양  
지를 전전하며 인생의 쓴맛을 본 그  
는 나이 들면서 비로소 타인의 입장  
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그는 젊은 세종을 이해시키며 신  
하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 현실  
과 다소 동떨어진 임금의 개혁안을  
때로는 양보시켜 신하들과 타협을  
보았고, 반대로 신하들이 궁궐 내의불당을 없애라는 요구를 하거나 훈  
민정음 창제에 반대할 때는 인내로  
설득해 한 시대를 태평성대로 만들  
었다.황희 정승도 젊어서는 방세를 추  
구했지만, 나이 들면서 원세의 처세  
를 택한 것이다. 저자는 현대에서  
원세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종필 총  
재와 최규하·노태우 대통령, 고건  
전총리를 꼽는다.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인 인물  
뿐 아니라 정치 무대에 있었기 때  
문에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 이야기  
를 전개해 나간다.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정치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접하게 된다. 저자는 결론적으  
로 시기 문화가 넘치는 한국에서 성  
공하기 위해서는 원세가 되어야 한  
다고 말한다.“한국은 ‘시기 문화’가 넘치는 곳  
이다. 좁은 국토와 치열한 경쟁 때  
문일 것이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괜  
히 생긴 게 아니다.계를 잡아서 앙동이에 놓아두면  
뚜껑을 열어놓아도 한 마리도 도망  
가지 못한다. 조금 올라가면 다른  
개들이 자기가 올라가려고 끌어내  
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체질상 아무  
하기가 어렵다면, 아부는 못 하더라도  
도 시기는 받지 않도록 주변과 잘  
지내야 한다.아무리 능력 없는 자라도 별침은  
갖고 있다. 괜히 별침을 맞을 이유  
가 어디 있는가. 하긴 간혹 이유 없  
이 별침을 놓는 괴상한 별들이 있기  
는 하지만. 이렇기에 내가 그토록 ‘  
원세(原世)’와 ‘화광동진(和光同塵)’  
을 강조하는 것이다.”주변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원세  
로 살 것인가,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  
며 소신대로 살아가는 방세로 살 것  
인가? 이것은 누구나 인생길에서 계  
속 부딪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다.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을 원세로 살아가야 할까, 방세로살아가야 할까? 질문을 던지게 된  
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다.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  
을 보면 원세와 방세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  
을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셨다. 기도  
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  
들어버린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  
으셨기 때문이다.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관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방세의 삶  
을 그대로 보여준다.하지만 예수님은 방세적인 모습  
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원세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다.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기민히 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어  
린아이들을 축복해주셨다. 간음한  
다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  
하지 않으시고 공감해주셨다. 세리  
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세의 삶을 그대  
로 보여준다.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는 방세적 삶과 원세적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에 진리 문제에서만큼은 방세적  
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라는 이 진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교회의 담  
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방  
세와 원세의 조화로운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하게 될 것이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한글인터넷주소 큐란, 큐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지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멘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디올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키타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  
화대상, 천상별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총장 등록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상상,  
대한민국 보문문화상, 자평스상을 받았다. 일각각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  
서 나오는 그의 짐작 활용은 많은 독자들에게 전진한 김장을 선사하고 있다.

김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에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봄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  
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  
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신정호 목사  
한국신학대학원, 칭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인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최우수상, 종교 군 농어촌  
부지 회장, 서기, 총회 청지기, 세계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회장, 총회서기, 호남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 농설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전북 CGS 운영이나, 호남신학대학원 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학회 회장, 전주동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HAPPY NEW YEAR  
2021**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1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Or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9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ONATA SE**

Lease **\$158** +Tax      Or 0 Down **\$23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954**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6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9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ANTA FE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43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